

보도시점 2024. 1. 25.(목) 14:00 (2024. 1. 26.(금) 조간) 배포 2024. 1.25.(목) 09:00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 출범식 개최

-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산업, 기술 등 전문가 중심 협력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5일(목) 오후2시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이하 '전담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부문 자체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 저전력화 및 에너지 디지털 트윈·플랫폼 기술개발 등 디지털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해왔다. 다만,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제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만큼, 디지털 탄소중립은 범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이하 "전략")을 수립하여 제5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전문가 자문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전담반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산업, 기술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의 의미를 살펴보고, 올해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제품·서비스 등 국제 디지털 탄소중립 동향과 함께 국내 기술개발 사례를 공유한다. 그리고 기관별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탄소중립 활동에 대하여 공유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국장은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며,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산업 각 부문과 융합하여 탄소 배출량을 절감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기여 하도록 전담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주식 (044-202-6230)
		담당자	사무관	여동재 (044-202-6234)

